

국내 유턴을 통해 옛 영광을 재현하다

1. 기업 및 제품소개

- N사는 국내 제품 생산은 물론 베트남에 소재하는 자체 공장이 있으며, 일부 품목은 인도네시아, 중국, 베트남 등지의 협력공장에서 하청 생산하는 등 연간 약 400만 켤레 이상 신발을 생산·수출하는 글로벌 신발 업체



스포츠화



등산화



2. FTA 활용전 상황

- 국내경기 침체로 인해 내수판매 중심에서 벗어나, 거대 경제권인 EU, 미국 등으로 시장 진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
- 최근 발효된 한-EU·한-미 FTA로 낮아진 관세 혜택 효과를 누리기 위한 FTA 활용과 중국 인건비 상승, 원부자재 상승 등으로 중국 공장의 국내 유턴을 통한 국내 첨단생산시설 확충이 현안과제

3. 장애 요인

- 신발산업에서 'Made in Korea'의 브랜드 가치가 중국산보다 훨씬 높는데다 최근 FTA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갖추면서 한국을 떠났던 글로벌 신발업체들이 기술력과 관세혜택을 가진 한국으로 점차 눈을 돌리고 있음

- 그러나, 그동안 싼 인건비 등으로 생산기반이 중국이나 동남아로 많이 넘어가 국내 제조기반이 열악해져 있어 주문을 소화해내기 어렵고, 국내로 돌아오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 돌아오기 힘든 상황

4. 극복 방법

- ‘신발 집적화단지’ 유치를 통한 국내 유티 기반 조성
 - 한국신발산업협회를 중심으로 1년간에 걸쳐 관계기관인 부산시, 산업통상자원부, 부산·진해 경제자유 구역청, 도시공사 등에 신발 산업의 환경 무해성을 입증·주장하여, 산업변경단지 계획 변경 승인
 - U턴 기업의 경우 입주를 위한 부지 및 인력 확보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데 최근, 부산 강서구 ‘국제산업물류도시’에 10만㎡ 규모의 새로운 신발산업 집적화단지 조성이 확정
- ▶ 신발산업 집적화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학산은 중국으로 진출한 주문자 상표부착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 공장을 정리하고 이 단지로 이전

5. FTA활용 효과

- 제품 경쟁력 및 국내 생산량 증가
 -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향후 5년간 예상 재무제표와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연 16% 지속 성장을 예상 (순이익 6억원▶18억원으로 3배 증가)
 - 국내에 신규 생산라인 증설시 현재 月25,000족의 국내 생산규모가 月75,000족으로 확장되고, 규모의 경제를 통한 공장운영의 효율성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
- 국내 고용창출 효과
 - 국내 U턴(생산라인 2개 증설)으로 인해 기존 국내 직원 97명의 3배에 해당하는 235명의 인원이 추가로 필요

6. 시사점

- 생산공장을 국내로 이전하여 FTA를 활용하여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지역내 고용활성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